

2018년 10월 27일, 제주시 이호1동 백개마을회관, 이효순 조사.

김달봉(남, 1934년생, 제주시 이호1동)

- 제주시 이호1동에서 태어나 84년째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이호에 폐동밭이라는 곳이 있다. 옛날에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용왕 딸이라는 거북이를 잡으려고 쫓아 다니면서 때렸는데, 그 다음날 태풍이 불어서 하루 아침에 마을 전체가 모래에 덮여 마을이 사라졌다. 지금도 사람들은 해골이 나오는 폐동밭을 용왕이 벌을 줘서 모래로 덮였다고 한다.

[제보자] 옛날에 그 우리 하르방들 얘기가, 폐동전이 있는데. 폐동밭이라고 잇인다. 소나무 이런 거 잇인다. 그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거북. 요왕똥허고 그걸 잡을라고. 그냥 쫓아댕기고 영 올랑 뽀족허영 나오민 때리고. 경허다가 다음날 태풍이 분 거라. 지금 태풍 모양으로 태풍이 부는디 소낭밭 잇는 디는 집도 잇고 경헌 디라.

그런디 하룻밤 사이에 그냥 모래를 덮어 버린 거라. 경허영 여기도 모래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디 원래 땅밭이라 낫인디 모래 하루 진허게 덮어 불엇다 그러더라고.

[조사자] 벌 준 거구나. 요왕이예?

[제보자] 요왕이 벌 준 거라. 경허서 지금은 '폐동전'이렌 헤가지고 우리 나무 심을 때 흑을 놔야 뉘거든. 이젠 흑을 모래 걷어가지고 흑을 허는디 보니까 어린 아이들 해골바가지. 이추룩 파그네. 여기도 해골바가지 여기도 잇고.

나무 심젠 흑 파당 보니까 하루 지낭 요왕님이 그렇게 덮엇다고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 핵심어: 폐동밭(폐동밭), 어부, 거북이, 요왕(용왕), 태풍, 모래, 벌